

10»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	12»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2학기 정기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5.12.01(화)~2015.12.28(월) 대상 : 양 캠퍼스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5.12.31(목)~2016.01.05(화)

■ 지령 1600호 특집 - 말고 먼 하나의 캠퍼스

## 캠퍼스 통합 이대로 관철은가

국제캠퍼스의 정식명칭은 ‘경희대학교 용인분교’로 시작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거쳐 2007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로 명명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소위 본·분교 논쟁은 지난 2011년 8월에 본교통합에 관한 교육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어, 2012학년도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양 캠퍼스가 ‘이원화캠퍼스’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캠퍼스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원화’ 및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제캠퍼스’라는 캠퍼스 명칭에서부터, 응용과학대학과 이과대학 등에서 벌어지는 유사학과 논쟁, 캠퍼스 학과분류 시 기준 적용의 모호함에서 오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우리신문은 지령 제1600호 특집호를 맞아, 진정한 캠퍼스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았다.

### 지면 안내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설문조사	» 3
겉 다르고 속 다른 학과 분류	» 4
주요기업 입사지원시 캠퍼스 분리 표기 논란	
PRIME사업, 양 캠퍼스 “소통하라”	» 5
길게 읽기-‘국제캠퍼스’ 명칭	» 6~7
끝나지 않는 유사학과 논쟁	
응용과학대학-이과대학	» 8

## 국제캠퍼스는 왜 ‘국제’캠퍼스 인가요

‘한쪽만의’ 명칭변경 아래 드러난 ‘무색한 이원화’

###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등장한 지 8년이 되어간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7일 총장 승인과 그 해 7월 30일 학교 법인 경희학원의 캠퍼스 명칭 변경 승인을 거치며 ‘수원캠퍼스’의 명칭을 ‘국제캠퍼스’로 재명명했다. 2007년 10월 18 일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있었던 ‘국제캠퍼스 비전선포식’에서 ‘Global Mind, Global Reach’의 슬로건과 함께 기존의 명칭 대신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이름인 ‘국제캠퍼스’를 대대적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최근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입시정보의 ‘사실상 분교’ 표기와 캠퍼스 간 유사학과 다 전공 불가와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불문명한 이원화 기준’과 함께 캠퍼스 학문단위를 나타낸다는 ‘명칭’에 관한 논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서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과연 현재 국제캠의 ‘학문적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현재 국제캠의 학문 분포는 2015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전체 제적인원 기준 16,798명 중 이공계열이 55%(9,267명), 인문·사회계열이 19%(3,161명), 예체능 계열이 26%(4,370명)로 나타난다. 이중 공학계열은 약 40% 가량을 차지하며 단일 계열로는 가장 많다. 현재의 명칭이 캠퍼스 내 학문 분포를 충분

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명칭변경 당시에 이는 문제 사항이 아니었다. 2007년 있었던 비전선포식 내용에 따르면, ‘국제캠퍼스’로의 명칭정립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적 학문 단위의 특성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ABEEK(공학교육인증제)’과 ‘국제화 프로그램’을 내 걸었다.

‘ABEEK(공학교육인증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하는 제도다. 최초 도입 당시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인증받은 학위가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국제적 엔지니어’를 키워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국내 대학이 참가했고, 우리학교 역시 2009년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ABEEK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다. 엄격한 인증기준에 비해 국내 취업 시 실용성이 떨어져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졸업생이 국내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는 의혹도 상당했다. 결국 올해 공과대학이 존폐논란을 지속해오던 ABEEK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제캠의 ‘국제적 학문의 정체성’은 연결고리를 잃게 됐다.

‘국제화 프로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과의 교류’를 지표로 국제화 역량에 집중하던 우리학교 외국인 학부과정 재학생 수는 총 1,711(2015. 10. 01 기준)명이다.

▶6면으로 이어짐

## 욕망, 결핍과 충족의 패러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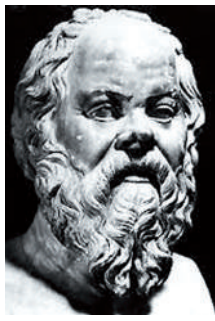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⑦

조현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욕망이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몹시 원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우리는 행복과 건강, 미모와 지성, 재력과 권력을 원한다. 욕망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지금 내게 결핍된 것이다. 욕망은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운동이다.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핍이 필요하다. 에로스(Eros)는 풍요의 신

포로스(Poros: plenitude)와 결핍의 신 페니아(Penia: poverty)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인류가 발생하면서부터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란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부족해 이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함께 있어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해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절반이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과 겨룰 체력, 청중 절반이 박수 칠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했다. 18-9세기 독일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보다 한 발 앞서 있어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고 했고,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은 삶의 추동력이며 사회적 금기 때문에 금지된 욕망은 꿈에서라도 표출된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은 ‘진정한 욕망은 상징적 요구를 가로지르는 실재의 윤리’라고 했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고대 희랍 철학이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Symposium)』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대 희랍 철학자들의 열정어린 에로스 논의가 들어있다.

『향연』은 아폴로도로스가 예전에 아가톤의 집에서 들었던 향연의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전해들은 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11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오환석 (기계공학)교수 >>11면

